



여기서는 평가원이 정말 자주 내지만, 답 선지로는 단 1회도 된 적이 없는 선지들을 함께 볼 거다. 왜 평가원이 이런 선지들을 무시워하는지 이유까지 붙여주겠다. 이번 챕터에 담긴 모든 선지들은 답이 된 적이 없다. 단, 경고 하나 하겠다. 이 선지들을 시험장에서 걸러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답 선지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가장 마지막에 확인해야 할 문학 개념어 선지라는 이야기이지, 무조건 안 되는 선지가 아니라는 거다.

1 애매하면 애초에 답이 될 수 없다.

[1] 잦은 / 빈번히 / (장황하게)

‘잦다’라는 말에 대해 명확하게 몇 번이 잦은 건지 결론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 가령 10번 정도면 충분히 잦은 것 같다. 근데 그걸 그 짧은 수록 지문 안에 다 옥여넣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소설이 존재나 할까? 그렇다. 평가원은 ‘잦다’라는 말에 대해 단 한 번도 답선지를 낸 적이 없다. 정확히는 두려워서 못 낸 것이다. 참고로 최근 평가원 시험에 3년 연속 나오긴 했다. 답 선지가 되기가 힘들 뿐 자주 나온다는 거다. 앞으로 ‘잦다’라는 말이 나오면 판단을 가장 나중으로 미뤄라.

-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1109) (X)
-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1211) (X)
-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1311) (X)
-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1509A) (X)
-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1406B) (X)
-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1409A) (X)
-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1409B) (X)
- 인물 간의 대화를 빈번히 제시하여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1509A) (X)
-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1811) (X)
-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조성된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1909) (X)
-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2009) (X)



‘틀’에서는 평가원이 고려하는 문학 개념어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틀로 머릿속에 고정해주고자 한다. 실제로 저자가 만나본 평가원 출제자 중 이 4가지를 강조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가원의 공식 답변 / 평가원이 냈던 문제 등을 통해 정확한 핵심을 짚어보자.

서술자의 개입 /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은 고전 산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어이다. 고전 산문의 지문을 읽다가 ‘서술자의 개입’을 발견한다면, ‘선지로 나오겠네’라고 생각해야 한다. 출제자가 고의적으로 산문 중 ‘서술자의 개입’이 나온 부분을 찾아서 수록 지문으로 택하기도 한다. 그만큼 출제자의 사랑을 받는 문학 개념어라는 것이다.

우선 서술자의 개입 관련해서 아래 평가원의 공식 답변을 참고해보자.

〈2006학년도 6평 이의제기에 대한 평가원의 공식 답변〉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난다는 말은 독자가 서술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대목을 보겠습니다.

(ㄱ)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주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ㄴ)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해되 ...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왓

(ㄱ)과 (ㄴ)에서 서술자는 등장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앞선 상황에 대한 판단,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요약** 등을 통해 작품에 폭넓게 개입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평가원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1) **직접적인 평가**, (2) **앞선 상황에 대한 판단**, (3)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요약**이 모두 서술자의 개입이다. 또한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의 개입 중 일부로 취급된다.

따라서 서술자의 개입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며, 요컨대 ‘**서술자의 직접적인 평가와 판단, 심리묘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중요한 건 ‘서술자가 직접’했느냐다.** 이와 관련해서 함정 문제 및 증빙 자료를 보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고 하더라.

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올리라 하니 이때 낭자가 옥 같은 두 귀 밑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 반은 죽은 사람이라. 이를 보는 사람이 눈물 아니 짓는 이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에서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일단 논란이 있던 문제였던건 사실이지만, 거꾸로 평가원이 공식 입장을 아주 잘 내줘서 꿀팁 문제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우선 외양묘사인건 아주 확실하다.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반은 죽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정도만 토대로 평가원의 공식 답변을 확인해보자.

〈평가원 답변 내용〉

본 문항은 ㉠~㉡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의 ‘연약한~붙들려 가니’는 ‘숙향’이 처한 상황을 서술한 것이지 ‘숙향’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 ‘반은 죽은 사람이라’는 부분은 서술자가 인물의 상태에 대해서 논평한 것으로, 이 역시 ‘숙향’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지 ⑤번은 적절하지 않은 이해입니다.

평가원의 답변은 명료하다. ‘외양 묘사’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심리를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즉, 심리에 대한 추론이 가능해도 정확히 심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심리를 드러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 잘 알아가자. 심리는 추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심리가 드러난 부분을 보자. 어느 정도 되면 심리가 드러나는 건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다.